

# 오픈뱅킹 도입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

비바리퍼블리카 손현욱 실장

# Over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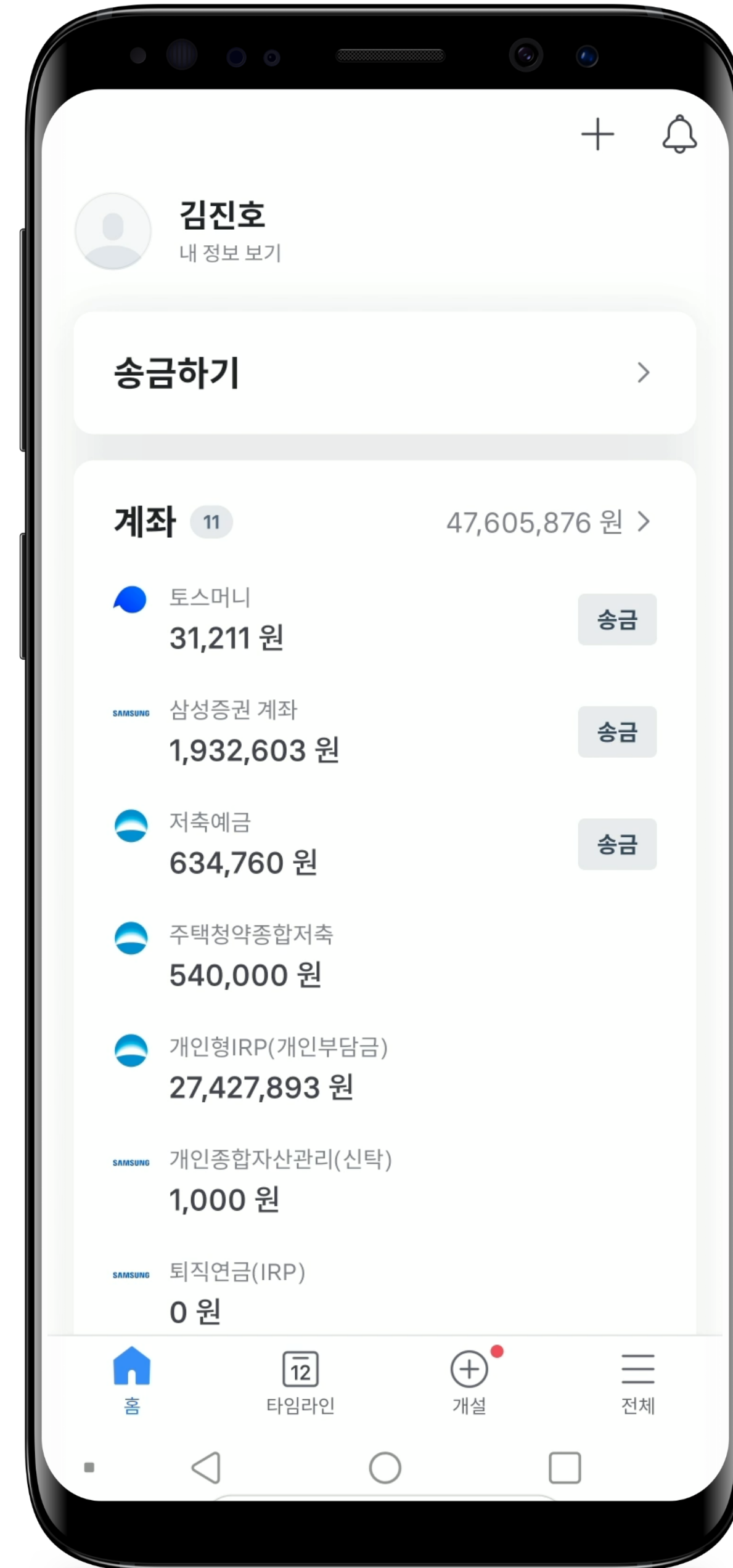
오픈뱅킹 도입의 의의  
오픈뱅킹 발전방향과 제언

# 오픈뱅킹의 의미

# 토스 오픈뱅킹 실적

19년 12월 오픈뱅킹 도입 이후,  
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

19.12월 24.7% > 20.1Q 83.4% > 20.2Q 84.6% (농협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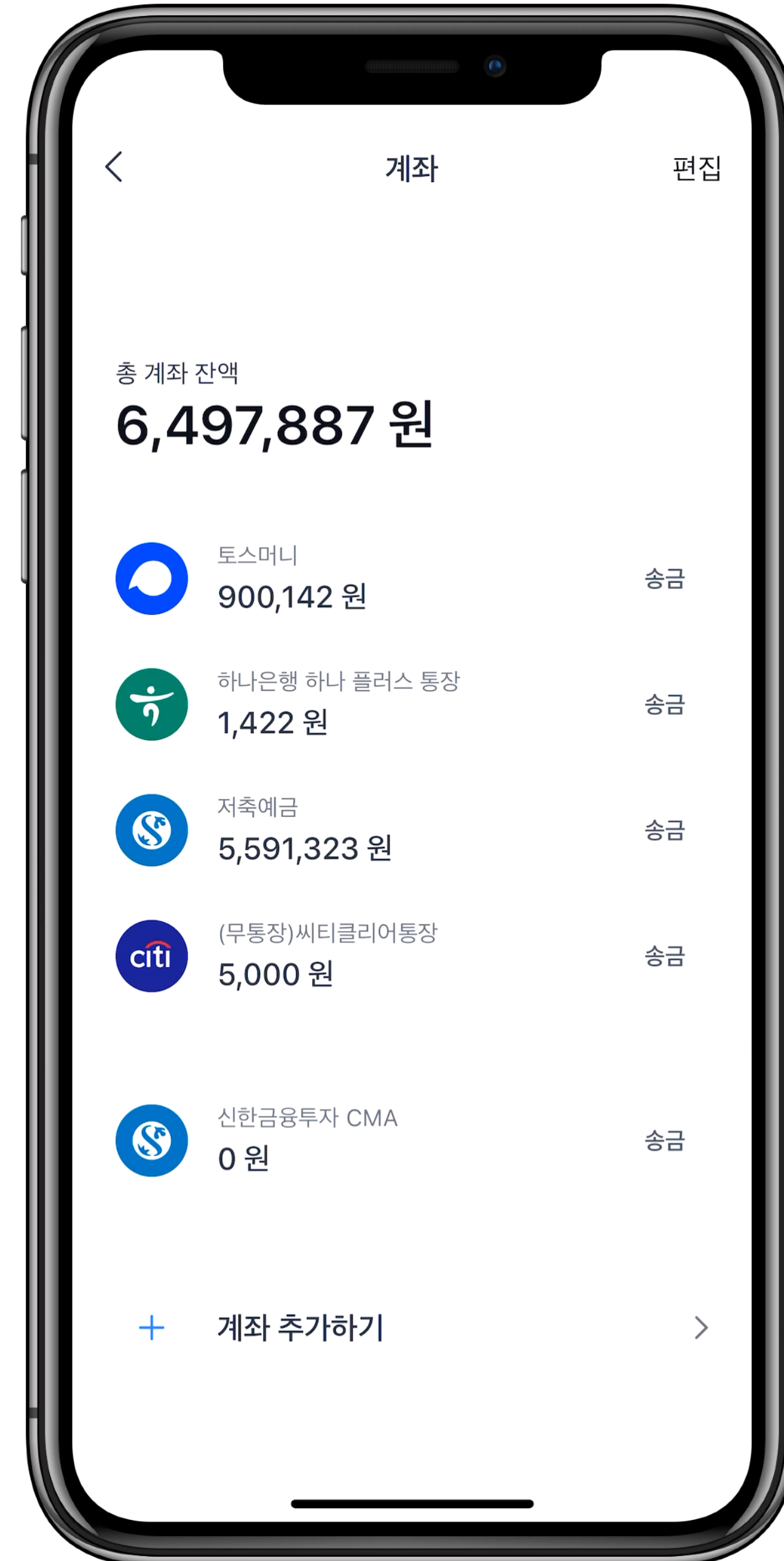


# 토스 오픈뱅킹 실적

5월 말 카카오뱅크 조회 서비스 오픈 이후, 조회 건수 급 성장

잔액조회 : 5월 40만건 > 6월 **1,800만건**

거래내역조회 : 5월 4만건 > 6월 **90만건**



# 오픈뱅킹의 의의

## 이용기관 증대

19. 12. 18 이전 24개 이용기관이 현재 67개로 확대됨

## 수수료 절감

신규 진입 사업자의 경우 1/10,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1/3 수준의 절감

## 고객 편의성

다양한 앱에서 고객들의 본인의 계좌를 등록해서 송금/조회 가능하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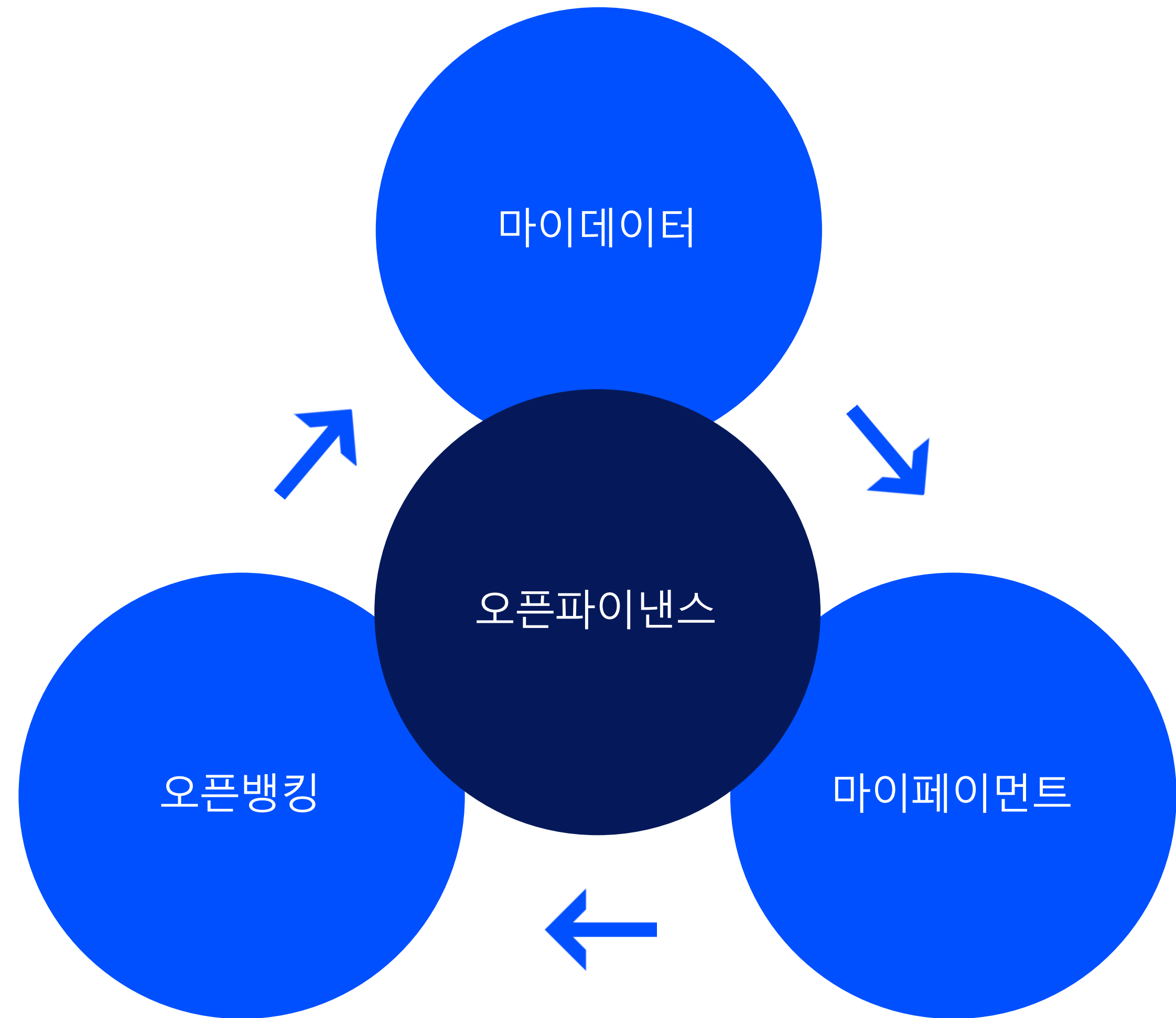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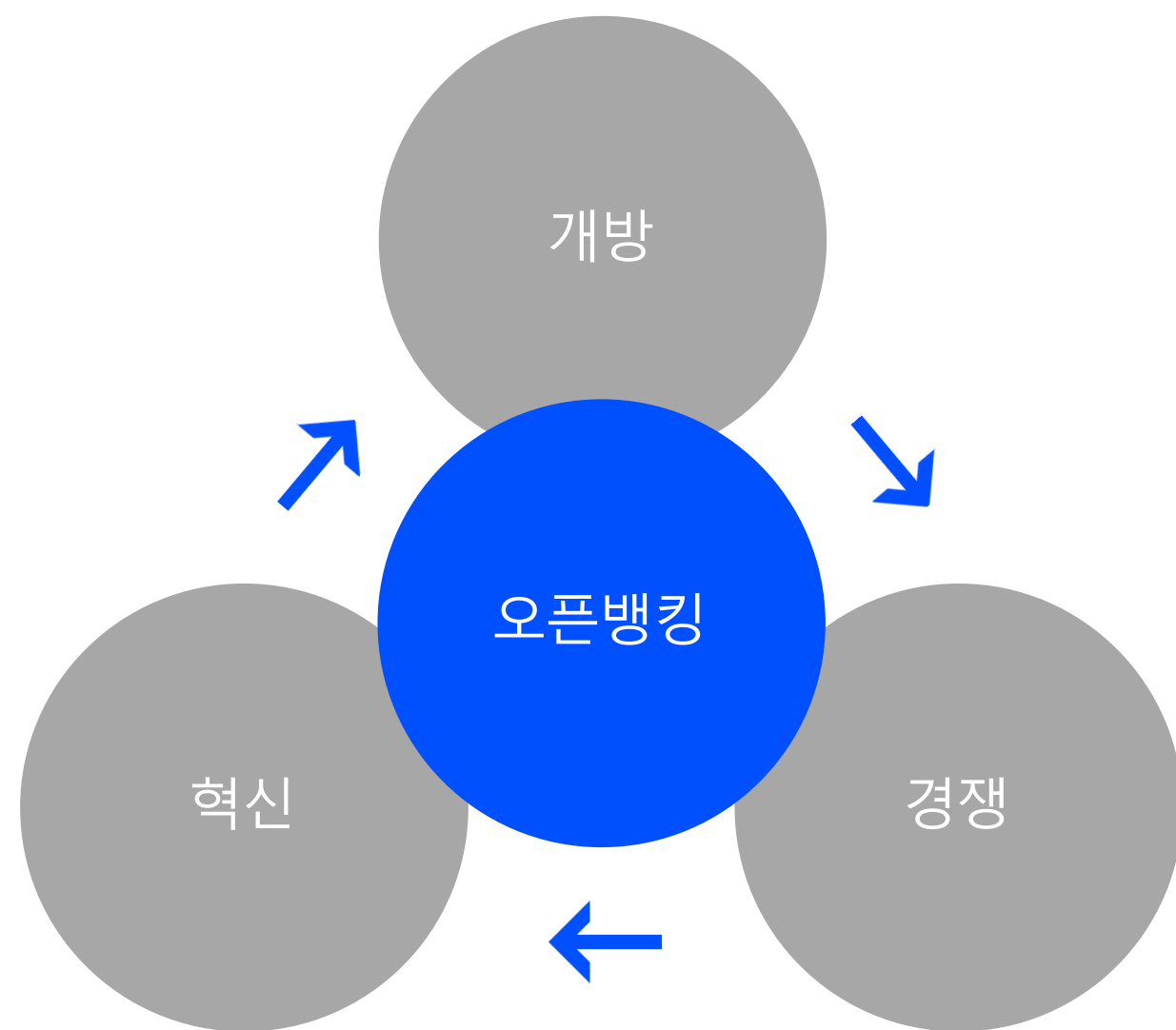
# 오픈뱅킹 발전 방향과 제언

# 오픈뱅킹 발전 방향

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
데이터 개방

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





#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
지역농·축협 등 제2금융권 참가확대

지역농·축협 계좌수는 전체 은행계좌의 1/6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빠른 참가 희망

\*지역농축협 고객은 NH스마트뱅킹 앱을 통해서 오픈뱅킹 우회 이용 가능하고, 지역조합의 합의 이유로 소극적

그 외 상호금융, 증권사, 저축은행, 우체국 등도 연내 오픈뱅킹 참여 필요

#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

## 조회 API 수수료 합리화

업무	구분	현행 비용	기본비용 <sup>[SEP]</sup> (대형)	경감비용 <sup>[SEP]</sup> (중소형)
조회	잔액조회	10원	10원	5원
	거래내역조회	50원	30원	20원
	계좌실명조회	100원	50원	30원
	송금인정보조회	300원	50원	30원
이체	출금이체	500원	50원	30원
	입금이체	400원	40	20원

※경감비용 적용기준: (이체) 월 거래금액 100억원↓ & (조회) 월 거래건수 10만건↓

19년 12월 오픈뱅킹 런칭 시 이체 수수료는 1/10로 인하

입금이체 수수료는 펌뱅킹 대비 현재도 높은 수준

※ 펌뱅킹 협약조건에 따라 입금이체 수수료 0원~10원에 이용 중

조회 API 수수료가 높아 핀테크 기업 사용률 저조 (주로 은행권에서 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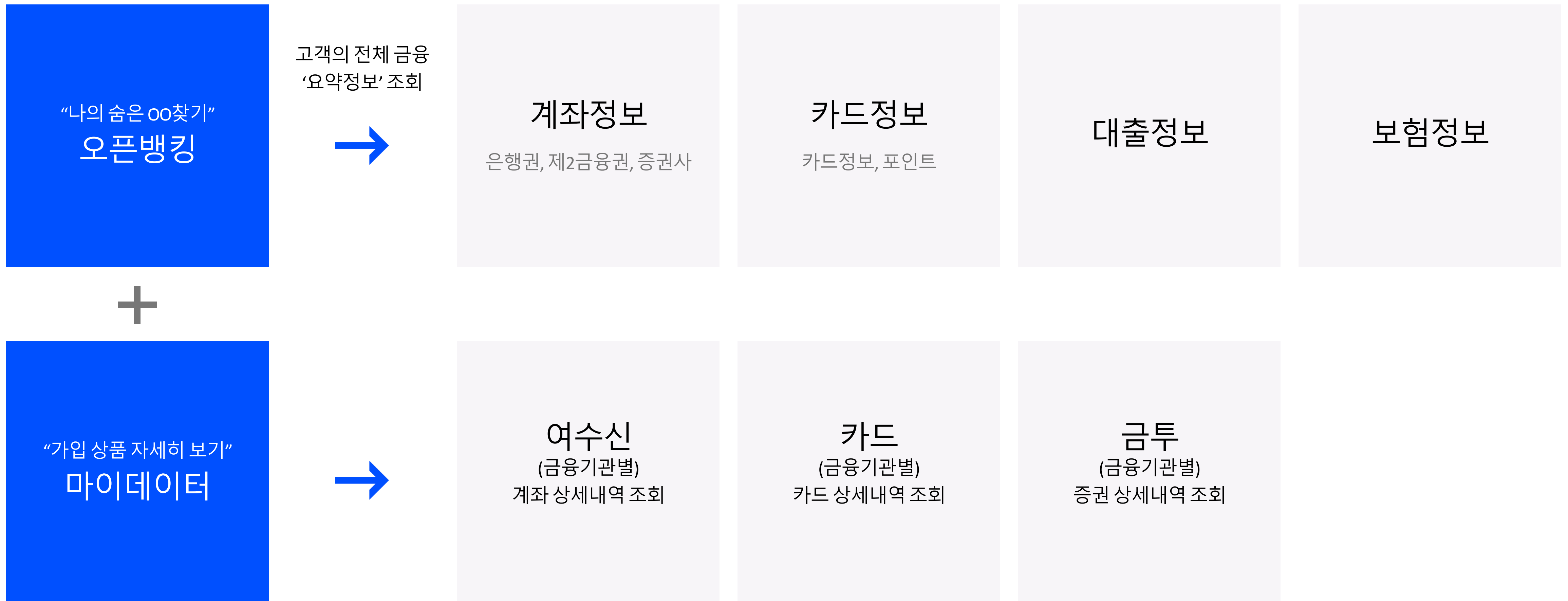
※ 카카오뱅크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에 이용 (주로 PFM 서비스用)

→ 조회 수수료 또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 인하 필요

※ 마이페이먼트 도입 시점, 지급지시 API 관련 가격 위와 별개로 별도 논의 필요

# 오픈뱅킹 활용 데이터 개방

금융권 어카운트 인포 [요약 정보]와 핀테크 정보 등 포괄적인 데이터 개방 필요



# 간편결제 경쟁 저해 요소 제거

페이인포 (자동이체정보) 핀테크 개방

1. 자동이체정보 간편관리
2. 계좌이동제 활성화
3. 종합지급결제업 시너지

→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경쟁과 협력 강화

감사합니다